

월/요/광/장

조기인



미국 워싱턴 소재 스미스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Smithsonian's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에서 십수년 전에 실제 있었던 일이다.

들었다. 이번에는 보다 강력한 살충제를 사용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되었다.

스미스소니언 박물관과 환차손

다. "새벽에 박물관 청소를 하러 출근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워싱턴 시내가 온통 어둠에 싸여 있을 때에도 우리 박물관만은 환하게 빛나더라구."

그랬다.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은 주변 건물들이 불을 밝히기 시작하는 아침 7시보다 훨씬 빠른 새벽 5시에 점등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곤충들이 박물관 외벽에 모여 들기 시작했고, 이들 곤충을 잡아먹기 위해 비둘기들이 다시 박물관 옥상에 몰려

에 동지를 틀었다. 이들을 먹이로 하는 비둘기들이 박물관 옥상에 몰려와 포식하고 배설했던 것이다.

이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와 경제의 많은 문제들에 있어 눈에 보이는 외부 요인만을 치유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원인은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도 마찬가지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최근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손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이 모두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우리의 환율도 변동할 수밖에 없으므로

환차손이 발생할 위험은 상존한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환율 급등으로 인해 수입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난해 원화 환율이 하락하던 시기에는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저하 등 다른 형태의 우려가 제기되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환차손의 원인을 투기세력의 환율 교란이나 금융회사의 고객 기반 등 기업 외부적 요인으로만 돌리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수출입업자들은 환율 변동에 의한 손익 관리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 외화자금 입·출금 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환위험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거래 금융회사의 조건을 구하되, 외화거래에 있어 환차익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F1 시범주행 '열기' 대회 준비 차질 없어야

100억원 대를 호가하는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경주차가 어제 광주 도심에 '시연하게' 질주했다.

F1대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더불어 지구촌 3대 스포츠 이벤트다. 관람객 400만명, 전 세계 TV 시청자 6억명 확보 등이 예상된다.

현재 상태에선 차질 국제적 망신을 살 수 있다. 전남도는 남은 기간 전력을 기울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막으론 국감 '정치공방' 접고 민생 챙겨라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된다. 여야는 당 차원에서 국감체제를 총가동하며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여야는 겉으로는 '정책 국감'을 표방하고 있지만 속셈은 다르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지난 10간의 좌편향 정책과 실정, 무능 등을 부각시켜 국정운영의 틀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중인 채택에서 드러나듯 기싸움은 치열하다. 국감이 시작됐지만 여야는 상임위별로 중인 채택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초반부터 일정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높다.

준비를 위해 과제가 산적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F1 특별법의 국회 통과다. 특별법이 제정돼야 국가차원에서 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다. F1경주장이 포함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 단지내 '삼포지구' 개발계획 승인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상태에선 차질 국제적 망신을 살 수 있다. 전남도는 남은 기간 전력을 기울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막으론 국감 '정치공방' 접고 민생 챙겨라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된다. 여야는 당 차원에서 국감체제를 총가동하며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여야는 겉으로는 '정책 국감'을 표방하고 있지만 속셈은 다르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지난 10간의 좌편향 정책과 실정, 무능 등을 부각시켜 국정운영의 틀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중인 채택에서 드러나듯 기싸움은 치열하다. 국감이 시작됐지만 여야는 상임위별로 중인 채택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초반부터 일정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높다.

법조 칼럼

강성두



일반시민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필자와 같은 변호사들에게 바라는 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변호사들이 너무 사익에 치우치지 말고, 법률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없는 힘없는 서민들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들입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공무원 신분보장 받으면서 양았던 월급이나 제공받았던 막대한 양의 자료, 훌륭한 시설 등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결국 이러한 제도변경을 실행할 것인지의 판단기준은 이를 시행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가장 우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국민이 전문가 집단에 가장 바라는 것이 공공성을 확보해 달라는 것인데도 본질적으로 사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자본을 이러한 영역에까지 무분별하게 유입시킨다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하여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행동일 것입니다.

우스갯말썬 영업을 못하는 변호사나 의사를 도와주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변경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그

기고

유태명



아시아 최대 거리축제라고 할 수 있는 '제5회 추억의 7080 총장축제'가 내일부터 6일간 대정장에 들어간다.

총장축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보여줄 수 없는 아련한 그 무엇인 '추억'을 형상화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진정한 가치 축제로 자립 잡았다.

역의 아이스캐피도 먹고, 송아지 물도 들고, 떡대치기를 하며 가족간의 정을 나눌 수 기뻐했다.

'추억의 전시장' '추억의 거리' '추억의 동창회' 행사장은 재현하는 등 마치 영화세트장을 방불케 하는 생동감 있는 추억의 무대를 갖추고 있다.

다음은 아시아 대표 거리축제로 첫발을 내딛는 총장축제 거리를 눈여겨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일반인 '의사·변호사' 고용제도 문제 많아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으며 많은 물질적인 유혹에도 끄덕여주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법조 주변의 상황을 보면 변호사로서의 공공성을 담보하려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해칠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가 자꾸 벌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자격사를 일반인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자격사' 제도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안 뿌리 뽑아야 할 문제로 거론되어 왔던 법조계의 폐쇄인 법조 브로커들을 공식적으로 양성화하고 합법화하겠다는 취지와 다름 없음을 엿볼 수 있다.

법률과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입니다. 일단 해보고 아니면 말자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도만 바린다고 선진화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는 평범한 사실입니다.

최대 거리축제 '총장축제'서 만남시다

군것질 거리를 건넌다면 아버지의 소박함을 축제로 투영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 총장축제는 '추억'이라는 축제 본질에 충실함과 동시에 아시아의 대표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 관문이나 다름없다.

먼저 총장축제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시민참여형'이라는 기획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가급적 직접 축제현장에 뛰어들어 참여하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축제 전체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이 가장 쉽게 축제를 즐기는 지름길이다.

이렇듯 '추억의 7080 총장축제'를 함께 하다 보면 올 가을 잊혀지지 않을 또 한편의 추억을 가슴에 새길 수 있을 것이다.

아침밥 꼭 먹는 수능생이 수능 19점 이상 높아

예전에 광주일보에서 보도한 내용 중 우리 국민들의 쌀 소비량이 밥 공기로 칠때 하루 2공기밖에 안될 정도로 줄어들어 걱정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일본 도쿄해양대 연구팀이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쥐 여러마리를 두 팀으로 나눠 각각 쌀과 밀을 먹이로 준 다음 물에서 해엄을 치게 했다.

학생이 주당 2번정도만 먹는 학생보다 수능 성적이 19점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영양학적으로 쌀의 효능을 밝힌 것이다. 물론 이같은 비슷한 연구는 그 이전부터도 많이 있었고, 영양학적으로 쌀의 우수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입증되긴 했지만 지금 더 새로워지는 이유는 요즘 아침밥을 먹지 않고 다니는 학생,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부모의 자식사랑은 면데 있지 않다. 이제 부터라도 등교하는 자녀에게, 출근하는 남편에게 하루도 거르지 말고 아침밥을 챙겨 주자.

▲정점순·목포시 대양동

無等鼓

스티븐 킹의 소설을 영화화한 '쇼생크 탈출'. 자유를 향한 갈망을 묘사한 이 영화 속의 한 장면을 기억하는가.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 앤디(팀 로빈슨 분)는 수감 초기 감방벽에 그녀의 대형 사진을 붙인다.

최진실



스타는 시대의 우상, 즉 아이콘이다. 최진실의 출현도 시대의 산물이다.

1940년대 리타 헤이워드는 바로 그 시대의 아이콘이었다.

한 미군들은 그녀의 사진을 철모 속에 넣고 전쟁의 참혹함을 이겨냈다.

'스타의 얼굴은 당대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를 대변한다.' 헝가리 출신 영화 감독 이스트반 자보의 말이다.

스타는 시대의 우상, 즉 아이콘이다. 최진실의 출현도 시대의 산물이다. 서구 미인 일색의 브라운관에 갇혀있던 모와 발랄한 이미지를 지닌 최진실의 등장은 1980년대 말 대중의 바람이었다.

1940년대 리타 헤이워드는 바로 그 시대의 아이콘이었다. 2차대전에 참전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website URL.